

모리 오가이 작품에 나타난 <배(舟)>

— 「망상(妄想)」을 중심으로 —

김 옥 지*

(e-mail : kimochi39@gmail.com)

目 次

1. 들어가기
 2. 「망상(妄想)」과 <배(舟)>
 3. <배(舟)>를 통한 심상표현
 4. 나가기
-

1. 들어가기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독일에서 4년간 위생학을 연구한 모리 오가이(森鷗外. 이하, 오가이로 씀)는 귀국 후 군의관직에 근무하면서 문학 활동을 시작한다. 그는 군의 관료로서 인정받는 한편 「무희(舞姬)」¹⁾를 비롯한 유학 3부작을 발표하여 문학자로서 이름을 알렸다. 의학자로서든 문학자로서든 명성에 걸맞은 업적을 이뤄냈던 오가이는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야마사키 구니노리(山崎国紀)에 의하면 군의로서 최고직위에 올랐고 문학자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오가이는 자신에 대해 ‘영원한 불평가’로 여겼으며 그것은 태생적인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²⁾ ‘영원한 불평가’는 오가이의 타고난 기질이라기보다는 그의 작품

* 부경대학교 일어일문학부 시간강사

1) 鷗外森林太郎(1890) 「舞姬」 『国民之友』第六卷第六九号新年附録.

2) 山崎国紀(1997) 「鷗外にかかわる母性」 『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一卷, 新曜社, p.69

鷗外は終生「永遠なる不平等家」であったのである。こうした鷗外の「生」を造り、持続せしめていたのは、言

「망상(妄想)」³⁾에서 주인공이 자신을 평가한 구절이 반영되었다고 본다. 주인공 백발의 노인은 젊은 시절 유학을 다녀온 의학자로서 살아온 생애를 회상하며 스스로를 ‘영원한 불평가’로 칭했다.⁴⁾ 그의 불평은 유학시절 체득한 선진의 의학이나 기술, 사상 등이 근대의 과도기를 겪던 모국의 현실성과 맞지 않은 좌절에서 비롯된 것이다. 「망상」에서 노인의 좌절은 귀국하면서 준비한 파랑새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린 사건에 기인한다. 파랑새는 유학을 마친 주인공이 모국으로 가지고 가려던 선물이었고 이를 배(‘배’는 이하, 오가이 작품분석에 한하여 <舟>로 표기함)에 실었다. 하지만 파랑새는 모국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린다.

아름다운 파랑새는 결국 배가 요코하마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다.⁵⁾

귀국 선물이었던 파랑새는 모국의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하기 전 <舟>안에서 죽어버렸다. 시게마쓰 야스오(重松泰雄)는 선진의 의학이나 기술뿐만 아니라 정치와 문화 등이 맞지 않은 일본사회의 풍토에 대한 절망감을, 파랑새가 죽어버리는 일화로 다뤘다고 한다.⁶⁾ 파랑새가 죽어버린 곳이 일본이 아니라 <舟>안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본에 도착하기 전 <舟>안에서 파랑새가 죽어버렸다는 것은 <舟> 또한 오가이의 절망감을 표출하고자 한 요소가 아닐까 여겨진다. 나아가 <舟>는 선진문물의 상징이었던 파랑새를 실어 희망을 나르는 수단이었으나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파랑새가 죽어버리는 장소로 변해, 오가이문학에서 각각 상징하는 의미는 크다고 본다. 이를테면 「망상」의 <舟>는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파랑새가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의 <舟>는 귀국 선물이던 선진의 의학이나 기술 등 희망을 나르는 수단이었다. 이 같은 <舟>는 오가이가 유학길에 오를 때 기록한 「항서일기(航西日記)」⁷⁾에

うまでもなく鷗外の原性格が最も大きな働きをしたとみてよい。勿論、鷗外の生まれ持った資性もあった。

오가이는 평생 「영원한 불평가」였다. 이러한 오가이의 「생」을 만들어 지속시켰던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오가이의 태생적인 성격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오가이의 타고난 기질도 있었다.

3) 鷗外(1911)「妄想」『三田文学』第二卷第三号

4) 森林太郎(1972)「妄想」『鷗外全集』八卷, 岩波書店, p.131

自分は永遠なる不平家である。

자신은 영원한 불평가이다.

5) 앞의 책, p.130

美しい、青い鳥は、果して舟の横浜に着くまでに死んでしまった。

6) 重松泰雄(1997)「妄想の生まれる時、生まれるところ—鷗外『妄想』一解—」『講座 森鷗外 鷗外の作品』第一巻, 新曜社, p.299

しかもこの挿画は、ことがけして「自然科学の分科の上」だけの問題にとどまらぬことを暗示する。青い夢の鳥など持ち帰ってもとても育ちそうもない風土—鷗外は主人公に自然科学の比喩を借りて、政治、経済、文化などあらゆる方面にわたる日本の<現在>の状況そのものを語らせているのだ。

게다가 이런 삽화는 결코 자연과학의 분과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은 것을 암시한다. 파랑새를 가지고 오더라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풍토—오가이는 주인에게 자연과학의 비유를 빌려,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방면에 걸친 일본의 <현재>상황 그 자체를 말한다.

도 나타났다. ‘큰 뜻을 품고 선진 의학을 배우러 가는 만 리 길이 순풍에 <舟>를 탄 기분’이었다고 했다.⁸⁾ 오가이는 서양의학에 대한 기대로 유학을 떠날 때 자신이 탔던 <舟> 또한 희망을 실은 수단으로 나타냈고 독일에 도착해 유학생생활을 기록한 「독일일기」에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舟>가 「망상」에서 파랑새가 죽어버리는 장소로 묘사된 것은 희망을 걸었던 선진의 의학이나 연구가 모국에서 결코 희망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舟>를 통해 표출한 것이다. 그러한 절망감은 「망상」뿐만 아니라 「백물어」, 「유희(あそび)」 등 다수의 작품에도 나타나 있다고 한다.⁹⁾ 「백물어(百物語)」¹⁰⁾는 여름을 맞이하는 뱃놀이 행사를 다룬 내용으로 <舟>를 통해 작가의 의식을 드러낸 작품이다. 「백물어」에 절망적인 심경은 <舟>를 탄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며 회고한 결과물로서 「망상」의 <舟>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망상」을 중심으로 「항서일기」, 「독일일기(獨逸日記)」, 「백물어」 등을 살펴보고 각각의 작품에 투영된 <舟>는 「망상」에서 대비되는 양상의 <舟>와 어떻게 맥락을 잇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舟>의 양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으며 변화되는 기점은 무엇인지, 나아가 오가이를 ‘영원한 불평가’로 규정하는 부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2. 「망상」과 <배(舟)>

메이지 44년 쉰 살이 된 오가이는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며 집필한 자전적 소설 「망상」을 발표한다. 「망상」은 백발의 노인이 독일유학시절 체득한 연구와 이에

7) 鷗外森林太郎(1889)「航西日記」『衛生新誌』第二号~十八号

8) 森林太郎(1973)「航西日記」『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75

公教阿迷着鞭先。昂々未折雄飛志。夢駕長風万里船。

선진 의학을 배우러 떠나는 먼 길을 채찍하며, 큰 뜻을 저버리는 일 없이, 순풍에 배를 타니 만 리 길이 꿈만 같다.

9) 萩原孝雄(1997)「森鷗外における西洋と日本」『講座 森鷗外 鷗外と知的空間』第三卷, 新曜社, p.416
 そしてある意味では、鷗外の人生も文学もあげて明治国家の国是、近代化、啓蒙化に捧げられたものと言えよう。『妄想』、『かのやうに』、『百物語』、『あそび』その他で「諦念」や「傍観者」や「あそび」の虚無的心情をかいま見せたとはいえ、また『普請中』などから窺えるように不完全な明治日本を強く意識していたとしても、基本的には、近代の啓蒙に全幅の信頼と希望を託し、天皇制明治国家と自分を一体視するような一生を送ったと見て大過なかう。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가이의 인생도 문학도 메이지국가의 국시, 근대화의 계몽화에 내걸었다고 할 수 있다. 「망상」, 「카노요우니(かのやうに)」, 「백물어」, 「유희(あそび)」 등의 작품에서 「체념」과 「방관자」, 「유희」의 허무적인 심정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또한 「보청중(普請中)」 등에 보이듯이 불완전한 메이지일본을 강하게 의식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대의 계몽에 전폭적으로 신뢰와 희망을 걸어 천황제 메이지국가와 자신을 일체로 보는 듯한 인생을 보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10) 森鷗外(1911)「百物語」『中央公論』二六年第一〇号

대해 기대를 걸었던 모국에서의 경험을 회고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오가이의 경험에 반영된 것으로 독일로 향하던 <舟>안에서 쓰기 시작한 「항서일기」에도 볼 수가 있다.¹¹⁾ 현대의학을 서양에 가서 배우지 못한 자신의 학문이 그럴 듯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오가이로서의 독일유학은 오랜 숙원이었다. 유학을 가기 위해 승선했던 <舟>는 선진학문을 습득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한 요소라는 것을 오가이는 의식하고 있었다. 이는 독일생활을 기록한 「독일일기」에서 먼 미래로 함께 가기를 바랐던 친구에게 보낸 한 편의 시에도 나타난다.

거친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 작은 배를 탄 친구들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노를
젓는 것과 마찬가지로 / 전쟁터에서는 전우의 마음이 서로 이어져 / 생사를 겹고
서로 떨어지지 않듯이 / 우리들도 늘 한결같이 조국의 영예를 얻으려고 / 노력을
아끼지 않을 뿐이다 / 소중한 친구의 표시로 / 이 글을 당신에게 바친다.

베를린에서 1886년 2월 25일 학사 모리 린타로.¹²⁾

오가이는 친구 다나카 쇼헤(田中正平)에게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자 먼 미래를 같이 하자고 했다. 이것은 작은 <舟>를 타고 거친 파도에 시달리면서도 하나의 목적지로 향해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이라고 한다. 유학시절 오가이는 자신이 체득한 학문과 기술을 모국에서 친구와 함께 실현시키고자 한 의지를 내보였다. <舟>는 서양의학과 기술의 희망을 안고 먼 미래로 실어다 주는 수단이었다. 서양의학에 대한 기대를 「청년」에는 ‘미래의 나라에서 실현될 연구’로 나타낸다.

과광새를 외부에서 구한 치루치루와 미치루 형제는 기념의 나라, 밤의 궁전, 미래의 나라를 헤매며 걷는다. 그리고 그 미래의 나라에서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정교한 기계를 연구하고 있다. 날개 없이 날으는 수단을 연구하고 있다. 모든 병을 고쳐 줄 약을 연구하고 있다. 죽음을 극복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¹³⁾

11) 森鷗外(1972) 「航西日記」 『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75

以為今之医学。自泰西來。縱使觀其文諷其音。而苟非親履其境。則郢書燕說耳。(略)蚤有航西之志。(略)二十四日 午前七時三十分上船。

생각해보면 현대 의학은. 서양에서 온 것이다. 만일 그 책을 보고 그 음을 소리 내서 말한다고 해도. 만약 직접 그 땅을 밟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억지로 그럴 듯한 설명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중략) 비로소 항서의 뜻을 품는다. (중략) 24일 오전 7시 30분. 배를 탄다.

12) 森林太郎(1975) 「独逸日記」 『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131

荒れ狂う怒濤にもまれながらも / 小舟に乗った仲間は一つの目的地をめざして漕ぎ行くが如く / 戦の庭にありては、戦友の心は互いに結ばれて / 生死を賭けて相離れざるが如く / 我らも常に専ら祖国の榮譽を得んとて / つとめはげむのみなり / 貴き友垣のしるしとして / この書を君に捧ぐ

ベルリンにて 一八八六年二月二十五日 学士 森林太郎。

13) 森林太郎(1972) 「青年」 『鷗外全集』六卷, 岩波書店, p.419

모든 병을 고쳐주고 죽음을 극복할 방법에 대한 연구는 외부에서 구한 파랑새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외부에서 구한 파랑새는 오가이 자신이 유학시절 배운 선진 의학으로 ‘미래의 나라에서 실현될 연구’를 의미한다. 이 같은 파랑새를 귀국선물로 준비한 오가이는 「망상」의 <舟>에 실었다. <舟>에 실은 파랑새는 모국의 요코하마 항구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 버렸다.

새장을 들고 배로 돌아오니, 프랑스 배의 선원이 묘한 손짓을 하며, 「가망 없어!」라고 했다. 아름다운 파랑새는 결국 배가 요코하마에 도착하기 전에 죽어버렸다. 그것 또한 덧없는 선물이었다.¹⁴⁾

말하자면 희망을 걸었던 연구가 시도되기 전에 끝나버려 그 희망이 덧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청년」에서 주인공 준이치는 자신이 배웠던 ‘미래의 나라에서 실현될 연구’는 ‘찰나의 망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한 바가 있다.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가 옷깃이나 소매의 깃으로 스며드는 밤이었는데도 준이치의 피부는 뜨거웠다. 두려운 맹목적인 성적 충동이 이성의 빛을 뒤덮고 준이치에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한다. (중략) 준이치는 이내 온 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지극히 찰나의 망상에 부끄러워했다.¹⁵⁾

자신의 기대는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은 준이치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은 ‘찰나의 망상’일 것이라 묘사했다. 「청년」에서 ‘찰나의 망상’으로 비춰진 ‘미래의 나라에서 실현될 연구’는 이듬해 발표된 「망상」에서는 파랑새의 죽음으로 나타났다. 시게마쓰 야스오는 「망상」에서 파랑새가 죽는 에피소드를 다룬 것은 파랑새가 살아갈 수 없는 일본 사회의 절망적인 풍토를 표현했다고 한다.

아름다운 파랑새는 프랑스선박의 선원이 가망 없어—도저히 살 수 없다는 불길한

その青い鳥を余所に求めて、Tyltyl, Mytyl (チルチル ミチル) のきょうだいの子は記念の国、夜の宮殿、未来の国とさまよい歩くのです。そしてその未来の国で、これから先きに生れて来る子供が、何をしているかと思うと、精巧な器械を工夫している。翼なしに飛ぶ手段を工夫している。あらゆる病を直す薬方を工夫している。死に打ち克つ法を工夫している。

14) 森林太郎(1972) 「妄想」 『鷗外全集』 八卷, 岩波書店, p.130

籠を提げ舟に帰ると、フランス舟の乗組員が妙な手附きをして、「Il (イル) ne (ヌ) vivra (ヴウラ) p (パ) !」と云った。美しい、青い鳥は、果して舟の横浜に着くまでに死んでしまった。それも果敢ない土産であつた。

15) 森林太郎(1972) 「青年」 『鷗外全集』 六卷, 岩波書店, p.57

身の周囲を立ち籠めている霧が、領や袖や口から潜り込むかと思うような晩であるのに、純一の肌は燃えている。恐ろしい「盲目なる策励」が理性の光を覆うて、純一にこんな事を思わせる。(略) 純一は忽ち肌の粟立つのを感じた。そしてひどく刹那の妄想を慙じた。

예언이 적중하여, 배 안에서 이내 죽어버린다. 오가이는 어쩌서 굳이 이와 같은 에피소드를, 사명을 마치고 경사스럽게 귀국하는 주인에게 부여한 것일까. (중략) 또한 살지 못한 아름다운 파랑새의 우화가 일본의 풍토에 절망적이고, 게다가 최후까지 주어진 <역할>로 살아가야 했던 주인에게 있어서 단순한 우화가 아닌 우화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작품의 중심에 놓인 것도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¹⁶⁾

파랑새는 선진의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의미한다. 파랑새가 모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어버린 것은 선진문물이 일본의 사회에 적응하기에 쉽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결국 파랑새의 죽음을 다룬 에피소드는 희망을 걸었던 연구뿐만 아니라 선진의 철학이나 사상 또한 덧없는 선물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파랑새가 일본에 도착하기 전 <舟>안에서 죽어 있어, 일본 사회의 절망적인 풍토는 <舟>를 통해 나타내려는 작가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 파랑새의 죽음은 선진의 의학이나 연구가 모국의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백발노인의 좌절을 의미한다. 노인은 죽은 파랑새를 단념하지 못하고 여전히 찾아다니고 있다.

자신은 영원한 불평가이다 아무래도 자신이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자신이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회색의 새를 파랑새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길을 헤매고 있다. 꿈을 꾸고 있다. 꿈을 구며 파랑새를 꿈속에서도 찾고 있다. 왜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에 대답할 수는 없다.¹⁷⁾

회색의 새를 보고 결코 파랑새라 할 수 없었던 노인은 현실과 타협하지 못하는 자신을 두고 ‘영원한 불평가’로 칭한다. 회색의 새는 살아갈 수 있지만 파랑새는 살아갈 수 없는 현실에서 그는 불평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즉 파랑새의 죽음은 노인이 자신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뀐 암울한 현실을 의미한다. 절망적인 현실에서 노인은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노인의 불평은 파랑새가 죽은 시점에서 비롯되었다. 파랑새가 <舟>안에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노인을 ‘영원한 불평가’로 보는 기점은

16) 重松泰雄(1997) 「妄想の生まれる時、生まれるところ—鷗外『妄想』一解」『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第二巻, 新曜社, pp.299~308

「美しい青い鳥」はフランス船の船員の「イル ヌ ヴィヴラ バ」—とても育ちませんぜという不吉な予言が的中でたちまち死んでしまうのである。鷗外はなぜわざわざこのようなエピソードを、使命を終えてめでたく帰国する主人に対して与えるのか。(略) また育たぬ美しい青い鳥の寓話が、日本の風土に絶望しつつ、しかも最後まで境遇の与えた〈役〉を生き通さねばならなかった主人にとって、単なる寓話ならぬ寓話としての意味をもって作品の中心に据えられているのも故なしといえまい。

17) 森林太郎(1972) 「妄想」『鷗外全集』八巻, 岩波書店, p.129

自分は永遠なる不平家である。どうしても自分のぬない苦の所に自分がゐるやうである。どうしても灰色の鳥を青い鳥に見ることが出来ないのである。道に迷つてゐるのである。夢を見てゐるのである。夢を見てゐて、青い鳥を夢の中に尋ねてゐるのである。青い鳥を夢の中に尋ねてゐるのである。なぜだと言つたところで、それに答へることは出来ない。

<舟>라 할 수 있다. <舟>는 ‘미래의 나라에서 실현될 연구’를 상징하던 과량채를 실어 나르던 수단에서 ‘영원한 불평가’를 드러낸 매개로 변했다. <舟>는 희망을 나르는 수단이었으나 일본사회의 여러 문제뿐만 아니라 오가이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오가이는 문학작품의 <舟>를 통해 자신이 마주한 현실에 대한 내면의식을 구사하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었다. 「망상」에서 드러낸 문제의식은 고쿠라에서의 체험을 통해 포착된 오가이의 내면에 감춰진 좌절감이며, 이러한 의식이 작품을 통해 되살아난 것이라고 한다.¹⁸⁾ 고쿠라의 체험은 도쿄에서 근무하던 오가이가 규슈지방에 부임한 3년간의 ‘좌천’을 겪던 시기였다. 당시를 기록한 「고쿠라일기」에서 오가이는 자신의 복잡한 심경을 <舟>를 통해 드러낸다. 「고쿠라일기」에 묘사된 <舟>에 대한 첫 기록은 다음과 같다.

중국의 부쇼로 가는 길에, 모지에서 배를 내렸다. 삼수정에서 만찬을 제공하여, 보내고 주차장으로 간다. 진보에 가려면 여기서 나가사키로 나가 다시 배를 타야한다고 한다.¹⁹⁾

중국의 부쇼로 가는 길에, 모지에 도착해 <舟>에서 내린 후 진보로 가기위해 나가사키로 가서 다시 <舟>를 탔던 기록으로, <舟>는 단순히 이동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고쿠라일기」에 나타난 대체적인 <舟>의 유형이다. <舟>를 타고 둘러본 정경에 대한 첫 묘사에는 제지공장으로 인해 오염된 강이 나타나 있다.

고쿠라에는 십 수 년 간 이어져온 유일한 가게가 있다. 배를 무라사키강에 띄워 요리한다. 게다가 최근 2가지 악재를 겪는다. 상류에 센쥬제지회사가 세워져, 하수가 탁해, 운하에 좋지 않은 하나의 사례이다. 남쪽에 장사꾼이 여기 하천의 물고기로 장사를 하고, 여기서 배를 띄워 요리를 하며, 많은 매춘부를 두고 손님을 부르는 것이 두 번째이다.²⁰⁾

18) 末延芳晴(2008) 『森鷗外と日清・日露戦争』 平凡社, p.114

そして、『舞姫』の太田豊太郎がベルリンの「自由なる大学の風」に当たって自身の中に「奥深く潜みたるまことの我」を蘇らせたように、鷗外は、小倉での生活体験を通して、自身の内側に深く隠された「真の我」(『妄想』)を蘇らせる契機をつかみ取っていくことになる。

그리고 『무회』의 오타 도요타로가 베를린에서의 「자유로운 대학의 분위기」속에서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스며드는 진정한 나」를 되살렸듯이, 오가이는 고쿠라에서의 생활체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깊숙이 감춰진 「진정한 나」(『망상』)를 되살리는 계기로 포착해 간다.

19) 森林太郎(1975) 「小倉日記」 『鷗外全集』 三十五卷, 岩波書店, p.310

支那武昌に赴く途上、門司にて舟を下りたるなり。三樹亭に晚餐を供し、送りて停車場に至る。神保は此より長崎に至りて、再び舟に上ると云ふ。

20) 앞의 책, p.294

小倉には十数年来唯一店あり。舟を紫川に泛べて割烹す。然るに近年二厄に遭へり。上流に千寿製紙会社立ちて、河水濁し、生洲に宜からざる一なり。南隣に奸商ありて、同じく河魚を以て業となし、同じく舟を泛べて割烹し、多く私窩児を養ひて客を延く二なり。

「고쿠라일기」에는 산업화의 발달로 인한 공장의 폐수로 오염된 무라사키강, 더욱 오염된 하천의 물고기로 장사를 하며 여기에 <舟>를 띄워 매춘부를 두고 손님을 부르는 광경을 묘사하고서 최근의 악재라고 적었다. 이것은 근대화의 과정에 몸살을 앓는 일본사회뿐만 아니라 고쿠라에서 좌천을 겪고 있는 오가이 자신의 심경 또한 나타냈다. 즉 <舟>안에서 바라 본 탁한 하수와 오염된 하천의 물고기로 요리하는 <舟>의 식당, 매춘부를 두고 장사를 하는 <舟>는 오가이의 근대화에 대한 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고쿠라일기」에 비취진 <舟>는 「독일일기」에서 독일친구들과 즐겨 타며 돈독한 우정을 나눴던 뱃놀이로 등장하는 광경과는 차이가 있었다.²¹⁾ 다나카 미요코(田中美代子)는 「독일일기」와 「고쿠라일기」는 오가이 생애 주목할 만한 상징적인 시기의 기록으로 청년기와 장년기 각각의 위기를 암시하면서 15년간의 시간을 두고 서로 상응하는 일기라고 한다.²²⁾ 각각의 기록은 오가이의 문학사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일기라 할 수 있는데 오가이의 의식이 <舟>를 통해 묘사되어 있었다. 두 일기에 묘사된 내면의식은 「망상」의 <舟>로 이어져 맥을 같이 한다. 이를테면 「독일일기」에서 희망을 전하던 수단이었던 <舟>는 「망상」에서 파랑새를 실어 나르는 <舟>와 닮았고, 「고쿠라일기」에 비취진 좌절을 의미하는 <舟>는 「망상」에서 파랑새의 죽음을 맞이한 <舟>와 같은 맥락이었다. 파랑새의 죽음을 다룬 「망상」의 <舟>는 젊은 시절 오가이의 패기와 꿈, 그리고 그 꿈이 좌절을 되는 절망감을 드러낸 요소였고 이는 현실에 타협하지 못하는 오가이의 불평이 드러난 기점이라 할 수 있었다. 요컨대 「망상」은 <舟>를 문학적인 기교로 다룬 오가이 작품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3. <배(舟)>를 통한 심상표현

「망상」의 <舟>는 오가이 스스로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 기점으로 비취졌다. 오가이는 <舟>를 통해 고쿠라 부임시절 좌천을 겪으며 내재된

21) 森林太郎(1975)「独逸日記」『鷗外全集』三十五卷, 岩波書店, p.99

然れどもこの輩相俟し相倚る状、慣れ見る故を以て奇と為するものなし。暑中諸生輩は扁舟に棹してブライセと名づくる小渠を溯洄するを無上の樂とす。

하지만 일행들은 친한 상태, 친해지려고 일부러 행동하지 않는다. 무더위에 여러 학생이 작은 배에 노를 저으며, 프라이세라는 작은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즐거워한다.

22) 田中美代子(2006)「独逸日記・小倉日記」『森鷗外全集13』ちくま文庫, pp.500~503

いずれにせよ、「独逸日記」と「小倉日記」とは、鷗外の生涯に突出する二つの象徴的エピソードを記録したものであり、青春期と壮年期と、それぞれの危機をはらみながら、十五年の時を隔てて、相呼応している。

어쨌든 「독일일기」와 「고쿠라일기」는 오가이의 생애 돌출한 두 개의 상징적인 시기를 기록한 것이며, 청년기와 장년기 각각의 위기를 암시하면서 15년의 시간을 두고 서로 상응하고 있다.

좌절과 현실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작가가 자신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의도로 접근한 작품이 ‘나’를 주인공으로 한 「백물어」라 할 수 있다. 「백물어」는 오가이가 어린 시절 살았던 무코지마(向島)의 스미다강(隅田川)의 뱃놀이 행사를 다룬 내용이다. 스미다 강변에 살았던 오가이는 <舟>를 타고 통학을 하거나 뱃놀이를 즐기기도 하여 <舟>는 일상의 소재였기에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유학시절 「독일일기」에도 오가이의 노젓기 실력은 독일 친구들에게 가르칠 정도였고²³⁾, 이러한 기억을 오가이는 특별한 정취가 있는 체험으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슈타르베르크 호수에서의 뱃놀이 추억은 『독일일기』에서도 특별한 정취를 가지는 체험으로서 소중한 여기는 기억이다. 친구들과 함께 보낸 젊은 날의 시간은 이른바 오가이로서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시간이다.²⁴⁾

스미다 강가에서의 뱃놀이는 「독일일기」에 적었을 만큼 강한 인상을 받았고²⁵⁾, 이를 만년의 작품 「백물어」에서 다룬다. 「백물어」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가와비라키(川開き, 이하 가와비라키로 표기함)’²⁶⁾라는 행사를 맞아 여섯 척의 <舟>가 출발하는 장면에서 이야기가 전개된다. ‘가와비라키’ 행사는 향해하던 <舟>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이 모여 백 개의 촛불을 켜고서 한 사람씩 유령이야기를 하고 촛불을 끄는데 마지막 촛불이 꺼지는 순간 진짜 유령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주인공 ‘나’

23) 森林太郎(1975) 「独逸日記」 『鷗外全集』 三十五卷, 岩波書店, p.100

忽ち十五六の少女の服飾晒しからざるが、自ら槳を蕩するを見る。友人余を顧みて曰く。君彼女児に愧ぢざるやと。余因りて戯に棹郎を学びしが、両腕の運動齊一ならず、心を右腕に用ゐれば左腕主とする所を失ふ。乃ち哑然として大いに笑ふ。

급기야 15~6세 소녀가 복장은 불편하지만 스스로 노를 저어 본다. 친구가 돌아보며 나에게 말한다. 친구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에게 장난삼아 노 젓기를 배우지만, 양팔의 움직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신경을 오른손에 쓰면 왼손이 역할을 잃어버린다. 이내 어이없어 크게 웃는다.

24) 竹盛天雄(1984) 「流離と邂逅」 『その紋様』 小沢書店, p.11

シュタルベルク湖などの舟遊びの思い出は、『独逸日記』においても特別な趣をもつ体験として重んじられるものである。友人たちと共に生きた若き日のその時間は、いわば鷗外にとって終生忘れない大いなる時間である。

25) 森林太郎(1975) 「独逸日記」 『鷗外全集』 三十五卷, 岩波書店, p.99

檣橋 Spiessbruecke に至る。河岸処々に今戸渡口の渡守の板屋の如きものを作れり。

선창가 스피에스브로케에 도착한다. 강가의 여러 곳에 이마도 하구(동경의 스미다강 근처)에 있는 나룻배의 판자 집과 같은 것을 만들어 두었다.

26) 新村出 編(1993) 『広辞苑』 第四版, 岩波書店, p.563

〔川開き〕 --- 川の納涼の季節の開始を祝い水難防止を願う行事。江戸時代、陰暦5月28日に隅田川の両国橋の下で花火を上げて行こなつたのが名高い。

〔가와비라키〕 --- 강이 선선해지는 계절의 개시를 축하하면서 수해방지를 기원하는 행사. 에도시대 음력 5월 28월에 스미다강을 끼고 양 지역에서 불꽃을 쏘아 올리며 행해졌던 것이 유명하다.

도 ‘가와비라키’ 행사의 유령을 보기 위해 <舟>를 탄다. 여섯 척의 <舟>에는 각 계층의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백물어」에서 <舟>는 ‘나’의 세계를 나타낸 것으로, <舟>안의 여러 사람들은 ‘나’를 둘러싼 주변 인물을 뜻한다. 그리고 <舟>가 유령을 향해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가는 ‘나’의 생을 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백물어」에서는 향해하는 <舟>안의 ‘나’를 통해 인생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舟>를 타고 목적지로 향해 가던 ‘나’는 강의 종류로 접어들 때 물 위에 떠 있는 갈매기를 발견한다.

배는 서쪽 해안가로 올라가므로, 우마야바시 앞까지는, 오구라의 수문 바깥을 지날 때마다, 밀려오는 바닷물이 댐도는 물 위에, 지푸라기, 대팻밥, 우산대 등, 변기 파편들이 떠 있고, 그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게 둔감한 듯, 갈매기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다. 스와쵸 해안근처에서, 배가 조금씩 종류로 들어갔다.²⁷⁾

강의 종류에서 ‘나’는 갈매기와 마주한다. 갈매기는 물위에 떠 있는 지푸라기, 대팻밥, 우산대, 변기 파편들 사이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떠 있었다. <舟>를 타고 강의 종류로 접어든 ‘나’는 인생의 중년기를 맞은 오가이 자신을 가리킨다. 갈매기와 주변의 부유물에 대해 다케모리 텐유(竹盛天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강 표면의 광경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부유물 속에 떠 있는 갈매기의 이미지는 배를 탄 사람들의 심상을 표현한 것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 것 같다.²⁸⁾

주위의 부유물 속에 떠 있는 갈매기는 <舟>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심상이라고 한다. 갈매기의 이미지는 <舟> 안에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심상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를 바라보고 있는 주인공 ‘나’의 심상으로 비춰진다. 갈매기와 마주한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떠 있는 갈매기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하였고 주변의 여러 가지 지지분한 부유물은 자신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와 이에 대한 심상으로 여긴다. 중년이 된 ‘나’의 심상은 결국 오가이의 복잡한 심경을 묘사한 것으로 이에 갈매기 주변의 부유물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본다. 중년을 맞은 오가이는 <舟>를 탄 ‘나’의

27) 森林太郎(1972) 「百物語」 『鷗外全集』九卷, 岩波書店, p.134

舟は西河岸の方に倚って上って行くので、麿橋手前までは、お蔵の水門の外を通る度に、さして来る潮に淀む水の面に、藁やら、鮑屑やら、傘の骨やら、お丸のこわれたのやらが浮いていて、その間に何事にも頓着せぬと云う風をして、鷗が波に揺られていた。諏訪町河岸のあたりから、舟が少し中流に出た。

28) 竹盛天雄(1984) 「『藤柄絵』から『百物語』まで」 『その紋様』 小沢書店, p.555

これは至極あたりまえの川面の光景のように見えるが、いろいろな浮遊物の中に浮かんでいる「鷗」のイメージは、船中の人々の心象の等価物として措定されているようだ。

모습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舟>는 중년의 오가이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와 이에 대한 심경을 표현하는 매개가 되었다. 나아가 오가이는 <舟>를 통해 중년을 맞아 복잡한 문제에 놓여있는 자신에 대해 평가하기도 한다. <舟>가 다리 아래를 지날 때, 다리위에서 ‘나’를 향해 ‘바보’라고 소리치는 서생이 등장한다.

아즈마다리 위에는 사람이 제법 서서 강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 중 서생이 있어, 마침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지날 때, 큰소리로 「바보」라고 외쳤다.²⁹⁾

다리위의 서생이 ‘바보’라며 소리치는 것은 결국 <舟>안에 있는 ‘나’를 향한 질책이다. 이 같은 표현에 대해 다케모리 덴유는 행사를 주체한 그 자체에 보내는 비난이라고 한다.

서생이 내뱉은 바보라는 질책은 행사 그 자체에 대해 풍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³⁰⁾

‘바보’라는 질책은 가와비라키라는 행사를 주체한 그 자체를 비난한 것이라고 한다. ‘바보’는 ‘나’를 향한 질책으로, 복잡한 심경을 겪고 있는 오가이가 자신에게 던지고자 했던 궁극적인 메시지이다. 이것은 오가이가 마치 목소리를 내는 기법으로, 타 작품에서도 찾아 볼 수가 있다. 「기러기(雁)」와 「청년」에도 나타나 있다.

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바보로 여겨져 한결같이 바보로서 세상을 살아온 자이다. (중략)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역시 내가 바보다. (중략) 오타마는 화롯불 옆에 앉아 불을 뒤적거리면서 생각했다. 나는 어쨌든 바보일 것이다.³¹⁾

「기러기」에서 주인공은 세상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바보’로 여겨지며 살아온 존재라 한다. 게다가 작중인물 오타마(お玉) 또한 자신에 대해 ‘바보’라고 생각한다. 다케모리 덴유는 「기러기」에서 ‘바보’라는 표현은 작중인물의 자기각성 이후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오타마에게도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³²⁾

29) 森林太郎(1972) 「百物語」 『鷗外全集』九卷, 岩波書店, p.134

吾妻橋の上には、人がだいたい立ち止まって川を見卸していたが、その中に書生がいて、丁度僕の乗っている舟の通る時、大声に「馬鹿」とどなった。

30) 竹盛天雄(1984) 「『藤柄絵』から『百物語』まで」 『その紋様』 小沢書店, p.555

書生の吐きつける「馬鹿」という罵 この催しそのものへの、突き放した諷刺として読み取られる。

31) 森林太郎(1972) 「雁」 『鷗外全集』八卷, 岩波書店, pp.534~576

己おれは随分人に馬鹿にせられ通しに馬鹿にせられて、世の中を渡ったものだ。(略) こんな事を思うのは矢張りわたし馬鹿なのだ。(略) お玉は箱火鉢の傍そばへすわって、火をいじりながら思った。まあ、私はなんと云う馬鹿だろう。

32) 竹盛天雄(1984) 「『灰燼』の再考」 『その紋様』 小沢書店, p.652

しかし、程度の差はあれ、二人とも「覚醒」の後の相手に対する「馬鹿」にした気持、いわば「自己隠

오타마는 상대에 대해 ‘바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같은 표현을 쓴다. 따라서 주인공과 오타마가 스스로를 질책하는 장면에서 ‘바보’라고 한 것은 자기각성을 표현했다고 본다. 「기러기」에서 자기각성을 의미하는 ‘바보’는 「청년」에서도 볼 수가 있다. 「청년」에서 작중인물이 축복받은 존재임을 알면서도 불평하고 있는 자신을 두고 ‘바보’라고 하였다.

바보. 자신은 어디까지나 어리석은 사람이다. 연극에서 단 한번 만나 단 한번 찾아간 뿐인 내가 아닌가.³³⁾

「청년」에서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면서 내뱉는 ‘바보’는 「기러기」에서 자기각성의 표현과 흡사하다. 「청년」과 「기러기」에 묘사된 ‘바보’는 작중인물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현실을 겪으면서 불평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책이었다. 이러한 수법이 「백물어」에 접목된 것이다. 중년을 맞은 오가이는 늘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는 자신을 깨닫고 ‘바보’라 표현했다. 이를테면 ‘바보’는 주변의 여러 문제에 대해 불평하며 살아가는 작가 자신을 질책하는 메시지라 할 수 있으며 이를 <舟>를 통해 나타냈다. 「백물어」의 <舟>는 중년이 된 오가이가 불평하는 자신의 심상을 표현한 대상이었다. 「망상」에서 <舟>를 매개로 토로하기 시작한 불평은 「백물어」에도 나타나 있어, 오가이는 자신의 기대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한 불편한 심경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었다. 이것은 오가이의 ‘영원한 불평가’로서의 일면이라 할 수 있다.

5. 나가기

메이지 초기에 독일유학을 다녀왔던 오가이는 군의로서 최고의 직위에 오르며 문학가로서도 적지 않은 업적과 명성을 떨쳤음에도 그에 대한 평가는 ‘영원한 불평가’였다. 이는 오가이의 자전적 소설 「망상」의 주인공이 자신을 불평가로 지목한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의 불평은 선진의 학문을 배워 왔지만 그것이 모국에서 현실적으로

蔽」してる点に相似的關係がある。ともに「仮面」を被る。それがお玉においては妾の色づきさとなって「錯り認め」(『雁』)られ、節藏においては「大志のある人」として「錯り認め」られる、というイロニッシュな効能を發揮する。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 두 사람 모두 「각성」한 뒤의 상대에 대해 「바보」로 여기는 마음, 이른바 「자기은폐」를 하고 있는 점에서 흡사한 관계가 있다. 모두 「가면」을 쓴다. 그것이 오타마에게 있어서는 침의 오염함으로 「작각」(『雁』)을 하게 되고, 후시구라로서는 「큰 뜻을 가진 사람」으로 「작각」하는 역설적인 효능을 발휘한다.

33) 森田太郎(1972)「青年」『鵜外全集』六卷, 岩波書店, p.57

馬鹿な。己はどこまでおめでたい人間だろう。芝居で只一度逢って、只一度尋ねて行っただけの己ではないか。

반영되지 못한 실정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실정은 선진의 의학과 학문, 철학사상을 상징하던 파랑새가 <舟>안에서 죽어버리는 에피소드로 나타났다. 귀국 선물이었던 파랑새를 오가이는 모국으로 돌아오던 <舟>에 실었다. 파랑새는 「망상」뿐만 아니라 「청년」에도 희망의 상징이었고 여기에 <舟>는 이를 실어 나르는 수단이었으며 그것은 「독일일기」에도 나타나 있었다. 문학 작가로서 입문하기 이전에 기록한 「독일일기」에서의 <舟>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의 소재였고 친구와 함께 험난한 현실을 극복하며 먼 미래로 갈 수 있는 수단이었다. 또한 「청년」에서도 <舟>는 ‘미래의 나라에서 실현될 연구’를 나르는 수단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오가이가 독일유학을 떠날 당시<舟>는 선진과학을 습득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단이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년시절 오가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부친을 만나러 가려 했을 때 폭풍우로 강이 범람하여 이동할 방법이 <舟> 밖에 없었던 기억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³⁴⁾ 현실의 고난을 헤쳐 나가는 방법이고 미래를 향해 희망을 전하는 수단이었던 <舟>는 「망상」에서는 파랑새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으로 변해, 결국 절망적인 심정을 드러내는 매개가 되었다. 이를테면 오가이가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는 매개로 <舟>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었다. 이렇듯 「망상」에서의 <舟>는 오가이가 ‘영원한 불평가’로 평가되던 기점이라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드러내는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오가이의 절망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은 일본사회의 근대화 과정에 대한 의식으로 고쿠라 부임시절에 포착된 좌절에서 비롯되었다. 「고쿠라일기」에는 근대화의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사회를 <舟>위에서 바라보는 광경으로 묘사하였고 절망적인 현실을 「망상」에서는 파랑새가 죽어버리는 <舟>로 설정하였다. 여전히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주인공은 파랑새를 찾아본들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현실에 타협하지 못하는 오가이의 모습은 「백물어」의 <舟>에도 나타났다. 중년을 맞은 오가이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복잡한 심상을 <舟> 주변에 떠 있는 지푸라기와 대팻밥 등 지저분한 부유물로 나타났다. 문학자로서의 오가이는 스스로의 문제점을 인식한 자신에게 ‘바보’라고 불평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러한 불평은 「기러기」와 「청년」을 통해서 명맥을 잇고 있었다. 결국 「백물어」는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과 근대의 과도기를 겪는 모국에 대해 불평하던 일면을 <舟>라는 매개를 통해 드러냈다. 「망상」의 <舟>에서 비롯된 현실에 타협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관점은 만년의 「백물어」에도 이어져 있었다. 만년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34) 森まゆみ(2008) 『鷗外の坂』 新潮文庫, p.133

これ以前、千住在のころも静男は一度倒れている。九月初めの台風のとであつた。嵐のあとの濁流が川沿いの町をひたし、舟に乗って林太郎は父を見舞った。

센주에 있을 무렵에도 시즈오는 한번 쓰러졌다. 9월 초순 태풍이 지나간 후였다. 폭풍우 이후 탁류가 넘쳐 강가 마을이 잠겨 배를 타고 린타로는 아버지를 방문했다.

불평가로 살아가는 작가의 모습이 있어 오가이가 ‘영원한 불평가’로 평가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망상」에 나타난 <舟>는 오가이를 ‘영원한 불평가’로 규정하는 기점이 되는 매개라 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

新村出 編(1993) 『広辞苑』 第四版, 岩波書店. p.563

森鷗外(1971~1975) 『森鷗外全集』 第一卷-第三十八卷, 岩波書店

末延芳晴(2008) 『森鷗外と日清・日露戦争』, 平凡社. p.114

森まゆみ(2008) 『鷗外の坂』, 新潮文庫. p.133

竹盛天雄(1984) 「流離と邂逅」 『その紋様』, 小沢書店. p.11

竹盛天雄(1984) 「『藤柄絵』から『百物語』まで」 『その紋様』, 小沢書店. p.555

竹盛天雄(1984) 「『灰燼』の再考」 『その紋様』, 小沢書店. p.652

萩原孝雄(1997) 「森鷗外における西洋と日本」 『講座 森鷗外 鷗外と知的空間』 第三卷, 新曜社. p.416

山崎国紀(1997) 「鷗外にかかわる母性」 『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 第一卷, 新曜社. p.69

重松泰雄(1997) 「妄想の生まれる時、生まれるところ—鷗外『妄想』一解」 『講座 森鷗外 鷗外の人と周辺』 第二卷, 新曜社. pp.299~308

田中美代子(2006) 「独逸日記・小倉日記」 『森鷗外全集13』, ちくま文庫. pp.500~503

要 旨

After studying in Germany in the Meigi period, Mori Ogai (森鷗外, hereinafter “Ogai”) achieved a remarkable feat as a doctor and literary man. Serving in the highest position as an army surgeon and highly acknowledged as a literary man, he is evaluated as an ‘eternal complainer’. This is derived from the complaints represented in one of his works, “「Mousou, 妄想」” describing the main character who had to face a desperate contradiction between the state of his country and what he had learned in Germany such as advanced medicine, technology and thought. In *Delusion*, the blue bird, a symbol for the advanced culture, was accompanied on a boat (“boat” is written as “Boat (舟)”) to analyze Ogai’s works). “Boat (舟)” is a tool for transporting the blue bird of a hope. This is shown in 「Kouseiniki, 航西日記」 where he said he felt like a Boat sailing downwind when he went away to study. In 「Toitusniki, 独逸日記」 the Boat was described as the medium of memories and the tool of a hope. However, the blue bird, a symbol of a hope, was dead on the Boat in *Delusion* before he arrived at his country, so Boat is no longer the means of hope. The Boat in *Delusion* shows Ogai’s frustration at modernization and the shift of awareness of Ogai’s Boat. Thus, Boat in *Delusion* is the starting point where the main character began complaining, causing Ogai to hereafter be acknowledged as the ‘eternal complainer’. Also, the meaning of Boat was extended as an object embracing different actual problems. In 「Soteiniki, 徂征日記」 written while encountering demotion, Ogai described the process of the modernization of the Japanese society suffering the contaminated sea in the landscape viewed from Boat. That is, Ogai represented frustration at his lost dreams and his life experiencing the frustration. The Boat of frustration in *Ogruaniki* is the same as Boat in *Delusion* where Ogai depicted his critical mind. This representation is shown in the Boat of 「Hyakumonogatari, 百物語」 in which Ogai revealed the problems with him in his mid-aged life. Boat expressed in *Hyaku Monogatari* is where Ogai realized complicated feelings as a mid-aged man and critical mind as a literary man. That is, Boat is a medium showing the awareness of his life and the stream of times. Ogai revealed the state of modernization he was suffering and the aspect of his complaints about it. The complaints began to be seen in *Delusion* where his gift prepared for homecoming ended up as a futile hope.

This shows the shift of Ogai's consciousness from hope to frustration and the starting point as the 'eternal complainer' is illustrated in the Boat of his works.

キーワード : 1.boat 2.complainer 3.complain 4.blue bird 5.hope 6.frustration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